

종합

표문화전당 건립 속도낸다

별관 실측 연내 마무리 ... 구조 안전진단도 완료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로 1년여 동안 차질을 빚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별관 문제 해결에 따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 별관의 면적, 구조 등에 대한 실측작업이 마무리되고, 같은 달 별관의 존치 방식에 영향을 미칠 건물 구조안전진단 작업도 완료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옛 전남도청 별관을 부분 보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문화전당 공사정착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현재 진행중인 별관 건물 실측작업을 올 말에 마무리짓는 한편, 조만간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용역 과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추진단은 도청 별관의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문화전당 설계 변경 등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옛 도청 별관은 1970년대 사무공간

확장을 위해 본관 옆에 4층 구조로 1, 2층을 먼저 지은 뒤 3, 4층을 증축한 형태의 건물이다. 1, 2층은 벽돌을 쌓아 만든 조적조, 3, 4층은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 건물 재질이 달라 토론회 등에서 건물 안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옛 도청별관의 존치 방식은 건물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이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 나오면 1, 2층 일부를 뚫어 문을 내는 '오월의

문' 안과 3분의 1 가량을 남기는 '부분 존치안' 모두 가능하지만, 안전에 다소 문제가 있으면 보존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추진단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전당 설계자인 유구승씨와 협의를 거쳐, 문화전당의 설계 변경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어렵게 도청 별관 문제에 합의한 만큼 정부와 10인 대책위간 '합의정신'을 존중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현재 별관의 존치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중국 건국 60주년 경축 리셉션 주 광주 중국총영사관(총영사 안평란)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10월 1일)을 맞아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 주요 인사를 초청해 경축 리셉션을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통합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국민 10명 중 6명 꼴 '부정적'

국민 10명 중 6명꼴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통합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61.5%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연말뉴스

“법 집행 온정적 처리 않겠다”

이귀남 법무취임 ... 노동·지경·국방·여성장관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사진)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위력이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법 집단행동에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법적 판단 외의 사유로 미봉적이거나 온정적인 처리를 반복한다면 법집행 확립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북한은 핵개발 등을 통해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남아 있으며 뇌물사건과 토착배리 등 사회지도층의 부정 부패와 민생·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장관은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다 강도 높고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강

구해야 한다”며 “법과 질서가 바로서고, 부정과 비리가 발붙일 곳 없는 사회가 세계 일류 국가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보호비 명목 갈취나 불법 다단계, 보이스코싱 등 민생 침해 사범을 엄중히 단속하고 실생활에도움이 되는 ‘생활공감 정책’을 개발해 서민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함께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주호영 특임장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 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도 이날 오후 서울 부교동 여성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보다 많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여성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말뉴스

‘바다의 꽃’ 연산호 군락지

완도 해역서 대규모 발견

완도 해역에서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연산호(사진)의 대규모 군락지가 발견됐다.

국도해양부는 진도와 여수를 잇는 남해 서부해역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사업 중 완도군 신지대교 하단에서 대규모 연산호 군락을 발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연산호란 부드러운 표면과 유연한 줄기구조를 갖춘 산호를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바다의 꽃’이라 불린다. 이들 종은 남해 고유종이지만, 그동안 일부 개체만 보고됐을 뿐 대규모 군락을 이뤄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발견된 연산호 군락지는 자연 서식지가 아닌 인공 구조물(대교)에 조성돼 있었으며, 침해면 맨드라미와 빨강해면 맨드라미 등 2종이 제주도 문섬 연산호 군락지(천연기념물 제442호)와 비교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을 만큼 고밀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산호 성장이 5년 미만으로 앞으로 더 넓고 크게 군락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연산호 군락 주변에는 30여 종의 바닷물고기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바다의 꽃’이라고 불리는 바다나리와 눈송이꽃민숭이, 빨 산호 등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의 만평

- 김중두

더도 말고 전직總理들만 닮지 마세요

남도의 친구들’ 떴다

각계 퇴직자 58명 구성 사회봉사활동

각계각층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퇴직한 전문가들이 전남도의 사회봉사 분야를 비롯 도정의 각 분야에서 봉사활동에 나선다.

퇴직한 교육자와 공직자, 기업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원봉사단 ‘남도친구들’은 지난달 30일 전남도청에서 박종영 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사진)을 갖고 본격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들어갔다.

‘남도친구들’은 현재에서 은퇴한 교수·교사·기업인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 지난 6월 조직된 단체로, 현재까지 58명의 전문가가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분야별로는 교육·과학분야 29명, 사회복지분야 7명, 통역·관광분야 14명, 농어업 등 기타 분야 8명이다.

교수·교사출신이 32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 7명, 목사·기업인 등이 19명이며, 전남도는 지역 사회단체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남도친구들’을 필요로 하는 곳을 파악해 이 중 30명을 1차 파견하기로 확정했다.

박종영 전남도 복지여성국장은 “남도친구들 봉사단 참여자들이 그동안 각 분야에서 쌓아 온 전문적 노하우를 현장에서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분실

골프회원증 No. J01120066 광주C.C (주) 광주은행 상거 회원증(大小)을 분실공고함.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본 회사는 2009년 9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09년 10월 1일
엔케이엘컴퍼니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동명동 126번지 5층
청산인 남광기

경력사원 모집

금호아시아나 그룹 금호석유화학의 지회사인 금호항만운영(주)가 신규 설립되어 건설업무를 수행하는데 진취적이고, 열성적인 분을 초빙 합니다.

- 모집 전공과: 기계공학, 전기공학
- 자격: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해당 실무 3~5년 경력자
- 모집 인원: 기계공학 (남자)1명, 전기공학 (남자)1명
- 별명: 군필자 및 군면제자
- 근무지: 여수 산업단지내
- 일시 마감: 10월 10일(우편접수는 10월 10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등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 면접지일: 1차 서류심사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통보
- 면접지원방법: 우편접수: 전남 여수시 화정동 1288번지 금호항만운영(주)
E-mail: tpmjwo07@kpc.com
전화번호: 061-688-7194, 7192
팩스번호: 061-688-7148
담당자: 박정환

금호항만운영(주)

태양광발전소 및 사업인수

대상

연간 기준가격 적용대상설비 발전소
-사용승인 후 현재 가동 중인 건
연간 기준가격 적용대상설비 선정 사업부지
-2010년, 2011년 선정 건

지역 전국
규모 200KW이상
기한 2009. 10. 20
자금집행 서류 완비 후 1개월 이내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해와 땅**

상담문의 010-7219-7123

부동산투자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특지

- ▶담양 창평 펜션부지(계획관리지역) 3,342㎡ 매 4억6천
- ▶남평읍(중흥스파입구) 16,810㎡ 매 4억5천
- ▶북구 용봉동 대지 914㎡ 매 8억5천
- ▶광안구 요기동 담 3,000㎡ 매 1억3천
- ▶화순읍 계소리(자연녹지) 1,362㎡
- ▶무안군 일로읍(계획관리지역) 담 2,437㎡
- ▶무안군 운남면 관리지역(해변가) 전 23,600㎡ 계획관리지역 전 5,140㎡
- ▶화정동 터미널 인근 대지 1,016㎡

상기건물

- ▶용봉동(2층) 매 1억8천(보 5천/월 90)
- ▶오치동(6층) 매 17억(보 2억/월 1천2백)
- ▶고시빌(5층) 매 8억5천(월 1천2백)
- ▶용봉동(3층) 매 4억(보 7천/월 2백)

식당

- ▶월출산 입구 가든식당 7,665㎡ 매 7억5천
- 펜션 부지최적
- ▶(담양,창성 성업중) 대 690㎡ (매 1억5천) 대 2,700㎡ (매 3억5천)

광주시내권 원흥부지, 담양인근무인텔부지 급구함
경매부동산상당, 대출상당, 각종부동산투자상당
부동산투자클럽 공인 중개사 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형내(570419-1648716)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회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시간번호: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9년 249
공고인:이태승
한정승인수리일:2009. 9. 23.
공고기간:2009. 10. 1~2009. 11. 30.(2개월)
연락처:대전 대덕구 목상동 1674-2 한솔제지기술사 306호 이태승 (010-4742-2378)

판결공시

시간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229831
사건명: 명예훼손
피고인: 박재숙
위 피고인은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09년 10월 1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최형표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09년 9월 30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300,000,000원 중 금 250,000,000원정도를 감소하여 금 5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25,000주에 대하여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대로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 30,000주를 5,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와 주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가 일주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임에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세븐이앤씨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10-8
대표이사 서신병

드림결혼정보

조선·자본 성사까지 믿은 주선
국내는 호남과 서울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 010-6790-5408